

## 저소득층 자립방안을 위한 사례연구

박 용 순\*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저소득층의 특성
2. 저소득층 자립 실패의 원인
3. 새로운 자립방안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1. 사례 개요
2. 사례 결과
V. 결론
1. 개요
2. 제언

### I. 서론

사회복지의 기본가치는 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연대성, 기회의 균등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하에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각자에게 삶의 기회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체계적인 노력에 입각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가치적 지향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가지

\*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1) W. A. Friedlander et al., Concepts and Methods of Social Work (Englewood Cliffs.

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데 있으며, 무분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존적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드는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합의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목표 중 하나는 그 나라 국민들에게 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sup>2)</sup>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저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 제 4조에서는 “국가의 보호는 보호대상자가 자신의 생활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자산·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가보호의 기본목표가 자활가능한 저소득층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자립은 물론 바람직한 삶의 가치를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사회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복지재정의 압박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오늘날 선진 서구국가들은 복지국가 위기론의 대두 이후에,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내용과 방법을 신보수주의적 방향으로 재편성하기 시작했다.<sup>3)</sup> 이러한 재편의 이론적 근거로서는, (1) 공공복지서비스의 지원으로 인하여 복지급여자들은 의존성이 조장되고, (2) 이들이 일하고자 하는 자활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3)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포기해 버리게 한다는 것이다.<sup>4)</sup> 이것은 결국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유도에 힘쓰기 보다는 무분별하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 본인에게도 불행할 뿐만 아니라, 자립심, 독립심, 도덕심 등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국민전체의 복지증진에도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소비적이고 일시적인 것 보다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생산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호사업의 정책목표는 “스스로 생계유지의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계보장을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

New Jersey: Prentice-Hall, 1976), pp.2-7.

2) V. George & P. Wilding, Impact of Social Polic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4), p.8.

3) 어윤배, 「복지국가와 중소기업」 (서울: 책세상, 1994), p.68.

4) P. Johnson, "Some Historical Dimensions of the Welfare State Crisis," Journal of Social Policy, Vol.15, No.4 (1986), pp.443-445.

게는 자활자립할 수 있는 잠재능력 개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sup>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사회복지기관의 자립대책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자립대책으로서 빈곤해소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sup>6)</sup> 예컨대, 저소득층에 대한 직업훈련의 자격기준(15-30세)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그 이외의 연령층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고, 생업자금 융자제도의 경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으며, 기타 사회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서 이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은 거듭되고 있는 것이다.

C. Wilcox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 빈곤자의 욕구해결을 위해 현금 및 현물의 서비스형태를 제공해야 하고, (2) 빈곤계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자립을 가능케 하며, (3) 이들의 취업은 노동시장의 운영을 향상시키며, 근로자에게 기능(skill)을 가지게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sup>7)</sup> 즉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기능을 전수하여 취업기회를 부여하고 스스로 자립을 도모케 함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방법으로는 복지수혜자 개인을 중심으로 자급자족(self-sufficiency)이 가능토록 하는 미시적 접근방법이 강조된다.<sup>8)</sup>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저소득층이 취업의 기회를 갖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전문지식과 첨단기술이 요구되고 조직적인 직장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율적인 활동으로서 적합한 자영업 기회 제공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이 자영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의존을 탈피시킨다는 것은 국가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욕구충족과 자기실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여기서 자영업 개발을 강조하는 이유는 저학력에 기술도 없고 취업경험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유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향후 저소득층에게 적용가능하고 효

5) 보건사회부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보건 사회부, 1994), p.6.

6) 정복란 외 5인, 「생활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0), pp.98-116.

7) C. Wilcox, Toward Social Welfare : An Analysis of Programs and Proposals Attacking Poverty, Insecurity and Inequality of Opportunity (Homewood, Illinois: Richard D. Irwin, Inc., 1969), pp.363-364.

8) 어윤배, 전계서, p.45.

을적인 자립지원정책의 발전방향과 사회복지정책의 대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의 전개과정은 첫째, 저소득층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들의 자립실패원인을 분석하여 자활대책과 연결시켰으며, 둘째,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자립방안을 모색하였고, 셋째, 저소득층이 지니고 있는 자립동기, 근로능력, 자립기능 등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여 이에 적합한 자영업개발모형을 수립하였으며, 이 모형은 전통한과업(傳統韓菓業)의 사례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층의 특성

저소득층이란 일반적으로 공적인 빈곤기준에 의해 생활보호대상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을 말한다. 즉 생활보호기준에 따라 최저한의 소득에 위치해 있는 보더라인층(border-line)으로 불리어진다.<sup>9)</sup> 일반적으로 사회적 통념은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대개 빈곤자를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저소득계층은 영세민을 포함한 불안정 취업으로 생활하는 계층을 총괄하여 그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sup>10)</sup>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은 편의상 한 가구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저비용을 산정하여 책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는 경제적 척도에 의한 것으로서 각 사회는 최저소득액 또는 최저비용에 따른 빈곤선을 책정하고, 이러한 빈곤선에 못미치는 소득층을 절대적 빈곤층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소득면에 있어서 절대적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sup>11)</sup>

S. Balkin은 저소득층의 개념을 보다 다양한 특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즉 교육수준이 낮고, 인종적 차별을 당하고, 모자세대이며, 신체적 또는 사회적 어려움(handicap)을 가지면서 단지 수입이 적은 것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극빈계층을 포함한다고 말한다.<sup>12)</sup> 이러한 특성은 저소득층의 취업형태에 반영되어 그들은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놓이게

9) 京極高宣 外, 「現代福祉學レキシユン」(東京: 雄山閣出版, 1993), p.255.

10) 江口英一, 「現代の低所得階層」(上)(東京: 未來社, 1981), p.153.

11) G. Field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Cambridge Shi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137.

12) S. Balkin, Self-Employment for Low-Income People (New York: Praeger Publisher, 1989), pp.4-5..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단지 소득이 적다는 것에 그 성격자체가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빈곤자(working poor)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넓은 의미로서 직업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규칙성, 사회적 활동력의 약화 등 경제적 지위가 낮은 결과로 반영되어지는 저소득자를 말한다.

우리나라 경우는 저소득층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빈곤층 또는 중요치 않은 존재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즉 빈곤자를 지칭하는 경우로서 주로 '영세민', '저소득층', '빈곤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빈곤자체를 사회구조적, 역사적 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sup>13)</sup> 그러나 저소득층 연구의 문제점은 단지 어려운 생활이라든지 육체적 곤란에 초점을 둘 뿐만 아니라, 빈곤을 통해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회적 상황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저소득층의 문제유형을 살펴보면, (1) 소득중단자로서 실업자, 기타 결손가정 등이고, (2) 소득부족인자로서 영세서민, 어민, 영세근로자 등이다. 즉 전자는 소득이 중단된 자로서 영세민 자활지도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후자는 소득이 부족한 자로서 단기구호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보다 다양한 특성을 보여준다. 저소득층과 관련된 문헌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사회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취업형태를 갖고 있다. 이들은 취업이 불안정하므로 가족문제로서 자녀교육, 자녀의 비행, 가족원의 범죄, 이탈행동, 부부갈등, 건강문제 등을 수반하고 있다.<sup>14)</sup> 대개 저소득층의 직업구성은 단순노동, 생산기능직 근로자, 영세자영업, 무직 등이며 가구주는 약 70%가 비공식부문의 영세가내공업에 취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종사하는 일은 대부분이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가구주의 수입 이외에 배우자와 자녀들을 소득획득에 동원하는 취업방식을 택하고 있다.<sup>15)</sup>

둘째,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형태는 자가소유가 약 30%에 불과하고, 전세 및 월세가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6)</sup> 또한 이들은 무허가 정착지에 거주하면서 주거이동은 극히 저조하며, 이것은 빈곤지역의 탈피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13) 조홍식, "한국 도시빈민연구의 현황과 사회복지학적 과제," 「사회복지연구」(창간호), (1989), p.83.

14) 성규탁·송성자, "빈곤가족과 사회사업," 「사회복지」(가을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86), p.12.

15) 박영숙, "도심지 빈민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한국사회연구 2」(서울: 한길사, 1984), p.411.

16) 최일섭, "도시빈민의 실태와 연구," 「사회복지학」(통권 제14호) (한국사회복지학회, 1989), pp.27-29.

암시해 주고 있다.

셋째, 다양한 질병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과 열악한 주거환경의 조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과 재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끊임없이 건강의 위협을 받고 있다.<sup>17)</sup> 이들의 질병문제는 결국 노동력 재생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촉진하고 있다. 또한 질병이 발생했을 시 의료비 지출이 이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므로 더욱 빈곤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넷째,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들 수 있다. 저소득층의 자녀는 적절한 교육수준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취업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적 능력개발을 위한 주위환경으로부터 자극의 결여, 성취동기의 빈약, 학습의 부적합한 분위기 등에 기인한다.<sup>18)</sup> 특히 지속적인 교육제한으로 인하여 사회적 적응은 물론 생활의 좌절을 겪으면서 비행화하는 경향이 더욱 상승되고 있다.

다섯째, 가족구성원 중 노인과 장애인의 비율이 높다. 저소득층의 취약화 요인 중 하나가 노령화와 장애문제인데, 즉 노령화와 장애는 빈곤화의 대표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대다수는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기 쉬우며,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도 불안정한 취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빈곤화되기가 더욱 용이하다.<sup>19)</sup>

이상에서 저소득층의 특성은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주거환경, 질병에의 노출은 물론 저학력, 무기술, 의존성 등의 어려운 형편에 따라 하루살이 생활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의 불안정한 취업으로 생활의 곤란은 물론 질병문제와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파급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I. Sawhill에 의하면, 저소득층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질적 서비스의 제공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자조의지를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sup>20)</sup> 따라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인 물질적 원조보다는 노동능력이 없는 자에게 최저생계를 보장하며, 노동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적절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할 수 있는 제 여건을 조성해 줌으로써 근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모

17) 국토개발연구원, 「도시빈곤층 대책에 관한 연구」 (1989), p.13.

18) O. Moles, "Educational Training in Low-Income Families," Social and Rehabilitation Service Office of Research and Demonstration, Low-Income Life Styles, (1971), p.43.

19) 박순일, 「한국의 빈곤현실과 사회보장」 (서울 : 일신사, 1994), pp.108-109.

20) I. Sawhill, Anti-Poverty Strategies for the 1980s (The Center for National Policy, 1986), p.1.

색되어야 하겠다.

## 2. 저소득층 자립실패의 원인

정부와 민간기관에서는 수년동안 저소득층 자립을 위하여 다양한 자립시책을 전개해 왔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자립 프로그램<sup>21)</sup>에 대한 문제점을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저소득층에게 근로능력을 회복시켜 주어 능력에 맞게 취업을 하거나 적합한 자영업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의존을 탈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효과적인 자립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든지 축소하여 보다 현실성이 있고 효과성이 많은 자립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례연구에 필요한 기존자료와 병행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자립생활에 실패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0명을 선정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저소득층의 대표성을 띠는 대상자로서 자영업활동이 가능한 자들인데, 즉 ① 실직된 자, ② 시설퇴소자, ③ 모자세대의 부녀자, ④ 기타 생활곤란자 등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실태조사의 결과로서 밝혀진 저소득층 자립실패의 원인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적절한 자립기능의 부족

현대의 산업사회는 능률성과 합리성의 원칙하에 고등교육과 첨단기술을 요구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교육수준이 낮고 기술이 없는 저소득층이 취업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sup>22)</sup> 저소득층은 학력이 낮고 자립기능이 없으며 사회적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불평등한 취급과 채용기피 등으로 취업하기도 어렵지만, 취업을 한다고 해도 경직되고 조직적인 직장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적합한 자립기회를 제공하되, 자신의 자립생활에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는 자영업 활동으로서 자활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21) 기존 자립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할 것. 보건사회부 생활보호과,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보건사회부, 1994), pp.29-78. 정복란 외 5인, 전개서, pp.103, 108, 119.

22) 어윤배, "창업 및 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이론적 고찰, 「중소기업연구」(27)(서울: 한국중소기업학회, 1993), p.34.

### (2) 자영업 자본의 부족

저소득층은 근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타인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거나, 불안정한 취업으로 인하여 적절한 생활의 유지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3)</sup> 또한 이들이 자립을 위한 기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영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본이 없기 때문에 자립생활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의 생업자금용자에 대한 용자절차가 복잡하고 접근방법의 무지로 인하여 용자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용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적절히 자영업 활동과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설폐소시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통하여 자립도모에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금전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몰라 단시일내에 탕진함으로써 항상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이 자립의욕을 갖고 적절한 자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금 및 자립정착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자영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3) 자립의욕의 결여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으로서 직업훈련을 통하여 이들에게 어느정도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은 자립의욕의 결핍으로 창의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자립생활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sup>24)</sup> 특히 저소득층의 생활방식을 지적해 보면, 시설생활로 인하여 게으름의 타성에 젖어 있고, 타인에게 항상 의존하려는 습성이 있으며, 일에 대한 의욕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자립의욕의 결핍현상은 궁극적으로 당면한 생활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쉽게 좌절하거나 체념하는 경향이 강하여 항상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5)</sup> 이들에게 자립기회를 제공하되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자영업을 제공함으로써 자립활동에 대한 애착심과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주는 자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4)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부족

저소득층의 자립실패는 개인적 게으름, 노력부족 등의 원인 이외에도 현실적인 자립방법

23) 최일섭, 전계서, p.24.

24) 김영모, "생활보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정책연구」(제8집)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p.110.

25) 김현숙, "우리 나라 공적부조사업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론집」 (동국대학교 사회보장연구소, 1984), p.81.



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이 결여되어 있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또한 저소득층 스스로가 자립의욕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자립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로부터의 소외와 사회적 무관심 때문에 자신의 자활의지가 약화되는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의 자립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중심의 활동체계속에서 주민들의 격려와 수용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편견 등으로 자립심과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사례가 많다.

사회지원망의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은 상호원조체계, 즉 자조집단인데,<sup>26)</sup> 저소득층에게 상호원조체계를 통하여 사회적 적응과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갖게 하는 불리한 선입견이나 냉대 등을 해소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활동을 위해서 자영업 기회의 제공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수용과 이해, 협력 등을 통하여 이들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대인관계 능력의 결여

저소득층은 일정한 기능전수를 통해 자영업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주변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다. 그 동안의 단절되고 소외된 생활습성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원만한 자립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은 대인관계의 적응력이 부족하여 매사의 일에 수동적이고 쉽게 체념함으로써 항상 자립활동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은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고객과의 원만한 대인관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객유치와 판매율이 저조하여 자립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자립활동과 사회적응의 어려움은 저소득층들의 부족한 교육배경과 시설생활로 인한 사회적 경험의 부족, 인간관계의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관련전문가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여 자신감이 있는 인간관계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 (6) 가족관계로 인한 활동의 제한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결핍된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이들의 절반은 모자세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적 가족지원의 어려움과 정서적 가족기능의 결여로 자립활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27)</sup>

26) R. Toseland & L. Hacker, "Social Worker Use of Self-Help Groups as a Resource for Client," Social Work, Vol.30, No.3 (1985), p.232.

저소득층은 기존의 역할에 추가하여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됨으로써 책임이 가중되므로 역할갈등과 생활압박을 경험하게 된다.<sup>28)</sup> 예컨대, 탁아문제로 자립활동에 제한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여성세대주에 대한 편견과 어머니로서의 역할부담 등이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취업의 기회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자녀보호 및 가정살림 등으로 생활상에 부딪치는 당면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취업에 국한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저소득층에게 가족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동시에 자립이 가능한 가족중심의 자영업을 권장하여 현실적인 자활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 (7) 자립에 대한 계획성의 부족

저소득층의 대부분은 미래에 대한 계획성 및 자립심의 부족으로 항상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컨대, 이들은 습관적인 외부지원에 의해 의존하게 되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되며 저축하는 근검절약의 정신과 생활태도를 포기함으로써<sup>29)</sup> 무계획적인 생활을 지속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은 무계획적인 생활로 하루 벌어서 쉽게 소비하며, 닥치는대로 생활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영업 활동을 통한 근검절약과 저축심 등으로 생활상의 절제심을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립에 필요한 교육과 자립방법을 전수시켜 자립계획성을 갖고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3. 새로운 자립방안

지금까지 저소득층에게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제공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은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 금품을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 왔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각종 자활시책으로서 자립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어느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에게 근본적인 자립방안으로서 미흡하다는 사실을 이미 언급한 바가 있다.

저소득층 자립방안으로는 그들 스스로가 물질적인 자립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자립을 도

27) 옥선화, "도시 저소득층 가족의 부부문제," 「도시 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1992), p.29.

28) O. Pollack, "The Broken Family," in N. Cohen (ed.), Social Work and Social Problems (NASW, 1964), pp.325-330.

29) 어윤배, 전계서, p.42.

모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C. Wilcox는 저소득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게 높은 소득과 높은 수준의 삶을 영위케 하여 자립과 자존감(self-respect)에 공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30)</sup>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제공은 개개인의 지위를 확보해 주는 중요한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을 갖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일(work)은 생존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해 주기도 하며,<sup>31)</sup>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협력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게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일을 통하여 기존의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일 수 있으며, 타인 의존에 대한 게으름의 낙인을 해소할 기회가 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립활동이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층은 어느정도 육체적인 활동능력과 자립의 잠재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생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영업의 권장이 필요하다. 자영업은 저소득층의 낮은 학력과 무기술, 다양한 연령층, 사회적 무경험 등 부적합한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단순한 기능과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타인의 도움없이 스스로가 생계를 책임지고 살아가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또한 자영업은 경제적 자립은 물론 저소득층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삶의 동기부여와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자기성취를 이루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M. Casson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세 가지 이유를 (1) 실업 상태에서의 유일한 대안이며, (2) 타인의 통제없이 활동이 가능하고, (3)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활동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그러므로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으로서는 저소득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능전수와 소자본 활용을 통한 자영업의 기회제공이 바람직스럽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저소득층이 자립생활에 실패하는 요인들을 직접 관찰하고 분석하여, 이들에게 자립가능한 자영업개발에 착안을 두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실제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활용가능한 '전통한과업'의 사례연구를 근거로 하여 자영업개발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새로운 방향으로 요청되는 자영업 프로그램개발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에 기여하고자 한다.

30) C. Wilcox, op. cit., p.364.

31) R. Hall, Occupation and the Social Structure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5), p.2.

32) M. Casson, The Entrepreneur : An Economic Theory (Totowa, New Jersey: Barnes & Nobel Books, 1982), p.300.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네 집단으로 분류된 저소득층 15사례(15명)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영업 프로그램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 자립프로그램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선정된 네 집단의 저소득층이 자립에 실패하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여 현실적으로 요청되는 자립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자영업개발모형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통한과업(傳統韓菓業)'을 사례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한과업은 우리나라 전통 기호식품(곡물중심)으로써 최근의 수요증가로 시장성이 높은 업종의 하나이다. 이것을 통하여 저소득층은 간단한 기능과 소규모의 자본으로 자영업이 가능하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전통한과제조 기능전수 및 자립과정은 1987년 3월부터 1995년 2월까지 실시해 왔으며, 본 연구자는 15명의 저소득층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기업으로 한과제조업을 하고 있는 본가(本家)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훈련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첫째, 훈련대상자의 선정기준은, (1) 현재 실직상태에 있는 저소득층(3명), (2) 연장고아로 시설에서 퇴소한 자(3명), (3) 모자세대로서 근로기회를 갈망하는 자(5명), (4) 기타 학력이나 연령 등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자(4명)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단체, 종교단체, 인근주민 등에 의뢰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한과기능의 전수는 단기적 훈련으로서, (1) 기초훈련, (2) 향상훈련, (3) 적용훈련의 세 가지 훈련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셋째, 자립과정은 한과기능을 습득한 대상자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자립생활에 적응케 하고 있다. 즉 (1) 개인이 직접 한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이고, (2) 기능습득자 다수가 협력하여 한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며, (3) 개인이 일정한 자영업 자본금을 마련할 때까지 한과 제조업체에 계속 취업케 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자가 실증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으나 다음의 몇 가지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저소득층의 자활에 대한 연구를 전통한과업의 직종에 한정하여 전개하였다. 특히

저소득층 자립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자영업 직종이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전통한과 자영업 직종에 국한하였기에 자활의 연구범위가 제한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자영업 직종 중에서 전통한과업을 선택하여 기능전수 및 자립과정에 대한 실천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즉 전통한과업을 자영업 사례연구에 활용한 이유는 기능이 간단하고, 소규모 자본으로도 자영업이 가능하므로 저소득층 자립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영업으로서 전통한과업을 사례로 하여 자립프로그램 모형을 수립하고 실천하였기에, 한과업의 특성과 다른 자영업 가능직종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전통한과업의 사례연구에서 특정 저소득층 대상자를 15명으로 한정하였기에, 모든 저소득층을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본가에서 자영업 프로그램을 실천하였기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의 모든 사회사업기관 및 관련 훈련단체 등에 자영업개발모형을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표 1) 훈련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분포

(단위: 명)

구분 \ 내용	성 별	평균연령	교육정도	결혼여부	부부결혼	현재직업	자가소유
실직자 (3)	남:2 여:1	37세	중졸:1 고졸:2	미혼:x 결혼:3	이혼:x 사별:x	유:x 무:3	자가:1 전세:2
퇴소자 (3)	남:2 여:1	20세	중졸:2 고졸:1	미혼:3 결혼:x	이혼:x 사별:x	유:2 무:1	전세:1 월세:2
부녀자 (5)	남:x 여:5	54세	무학:2 국졸:2 중졸:1	미혼:x 결혼:5	이혼:1 사별:4	유:2 무:3	자가:3 전세:2
빈곤자 (4)	남:3 여:1	41세	국졸:1 중졸:2 고졸:1	미혼:1 결혼:3	이혼:x 사별:1	유:1 무:3	자가:2 전세:2

\* 훈련대상자들의 평균연령은 38세 이상으로서 기존 직업훈련 자격요건 (15-30세)에 제한되어 있으나, 이들 대부분은 자활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다.

\* 훈련대상자 중 몇명은 자가소유이지만 지역적으로 영세한 가정이다.

## IV. 연구 결과

### 1. 사례개요

자영업 부문은 대부분의 미숙련 노동력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중간 봉급생활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승이동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sup>33)</sup> 특히 저소득층은 간단한 기능습득으로서 독립하여 자립할 수 있는 자영업 활동이 요구되므로, 이에 전통한과업이 이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자립활동을 통하여 자기성취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인 전통한과는 현대의 자연식품으로서 선호도가 높고, 점차 대중화 되고 있으며, 한과업이 기존의 부업중심에서 주업중심의 직종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전통한과업이 저소득층의 자활책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 기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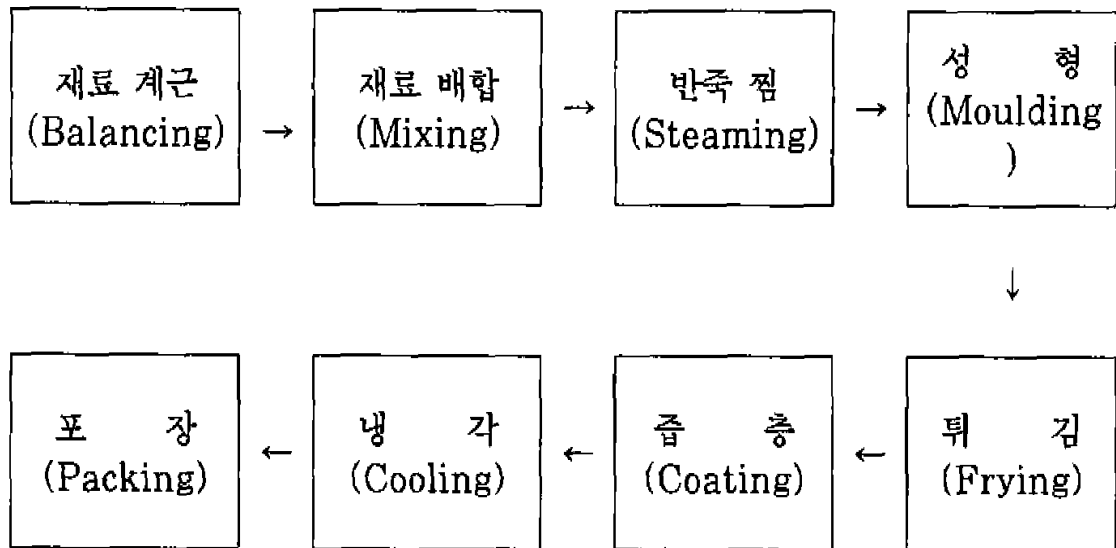
(1) 한과기능이 여타직종의 기능보다도 간단하고 누구든지 기능습득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2) 한과자영업은 특히 자본이 부족한 저소득층에게 소규모 자본으로도 운영 가능하다는 점이다. (3) 한과자영업은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전망이 좋다는 점이다. (4) 한과업 직종은 여타의 직종보다도 채산성이 있고 수익성이 높다는 점이다.

특히 저소득층에게 전통한과의 자영업이 적합한 것은, 이상의 이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구속없이 자유로운 자영업 활동을 통하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저소득층은 학력수준이 낮고, 자립기능이 없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과 자영업은 이들의 부적합한 조건들을 어느정도 극복해 주면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도모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

대상자에게 전체적인 기능전수를 위해서는 약 40시간(5일간) 정도의 훈련시간이 소요되었고, 기능전수의 과정에는 훈련대상자를 2-3명으로 한정하였다. 전통한과의 제조과정은 여덟 단계로 전개되는데, 즉 ① 재료계근, ② 재료배합, ③ 반죽 찜, ④ 성형, ⑤ 튀김, ⑥ 찹증, ⑦ 냉각, ⑧ 포장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과제조과정의 공정모형은 (표 2)와 같다.

33) H. Koo, "Small Entrepreneurship in a Developing Society : Patterns of Labor Absorption and Social Mobility," Social Force, Vol.54, No.4 (1976), p.782.

(표 2) 한과제조과정의 공정모형



전통한과업을 활용하여 실시한 자영업 프로그램의 단계는 (1) 계획단계, (2) 전수단계, (3) 자립단계, (4) 평가단계 등으로 전개되었다. 이상 네 단계를 도식으로 표시하면 (표 3)과 같다.

1) 계획단계 (planning stage)<sup>34)</sup>

(1) 홍보전략: 저소득층에게 자영업의 동기와 목적, 자영업의 내용, 자영업의 장래성 등을 설명해 주며, 자영업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2) 계획수립: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능전수자를 배정하고, 기능전수의 단계별 시간계획을 세우고, 기능전수의 성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3) 예산수립: 기능전수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수립한다. 즉 기본적인 시설에 소요되는 고정비용과 기능전수과정에서 기초재료로 활용되는 변동비용 등을 책정한다.

2) 훈련단계(training stage)<sup>35)</sup>

(1) 기초훈련: 한과에 관한 기초이론을 숙지하고, 인간관계능력을 고취시키며, 단계별 시

34) 박정주, "직업훈련의 4단계 지도방법I," 「기술시대」 (제5권 제5호) (서울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986), pp.74-75.

35) 박정주, 전계서, pp.76-77.

범교육 등을 실시한다.

(2) 향상훈련: 한과의 공정과정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을 집중지도한다.

(3) 적용훈련: 한과제조기능을 완전히 숙달시키고, 자영업 활동에 적용해 보며, 동기를 부여하고 자립의욕을 고취시킨다.

### 3) 자립단계 (self-reliance stage)

(1) 기능을 습득한 개인이 직접 한과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2) 기능습득자 다수가 협력하여 한과 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3) 개인이 일정한 자영업 자본금을 마련할 때까지 한과 제조업체에 계속 취업하는 경우이다.

### 4) 평가단계 (evaluation stage)

(1) 정확성 여부: 한과기능의 전수는 전체 40시간을 기준으로 진행되었다. 기능전수 과정에서 훈련대상자 중 모자세대의 부녀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40시간 이내에 한과기능을 습득하였다. 그러나 시설퇴소자들은 초기과정에서 자발적인 노력과 의욕의 결여로 인하여 예정된 시간보다 약 5시간 정도가 더 소요되었다.

(2) 효과성 여부: 대상자에 대한 기능전수의 결과로서, 대다수가 어느 정도 기능전수를 습득하여 자신의 특성에 따라 한과 자영업으로 자립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기능전수 과정에 있어서 가끔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기능전수자와 대상자간의 상호협조로서 모든 기능전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자립에 이르는 효과가 있었다.

(3) 효율성 여부: 한과기능전수의 효율성 평가로서 기능전수자와 대상자, 그 외의 참여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설퇴소자와 실직자 등이 훈련과정에서 나태하고 의욕이 결여되었을 때, 모든 구성원이 가족적인 분위기로서 서로 수용하고 이해하며 계획된 시간내에 한과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표 3) 자영업 프로그램의 단계

제 1 단계 (계획단계)	제 2 단계 (훈련단계)	제 3 단계 (자립단계)	제 4 단계 (평가단계)
① 계획수립 ② 대상자선정 ③ 비용예측	① 기초훈련 ② 향상훈련 ③ 적용훈련	① 개인자영업 ② 공동자영업 ③ 한과업취업	① 정확성 ② 효과성 ③ 효율성

## 2. 사례결과

지금까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과기능의 전수를 실시한 결과, 훈련대상자들은 진지하고 의욕적인 모습으로 훈련과정에 참여하였으며 현재 각자의 형편대로 자립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훈련대상자 네 집단의 특성별로 대표성을 띠고 있는 각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사례 1 : 실직자 K (남, 40세)

실직된 자 K의 전직은 트럭운전사였다. 2년전 사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으며, 현재 자신은 당시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이다. 사고 이후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매사에 자포자기하며, 매일 술을 마시고 삶의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친지를 통해 K를 본 연구자에게 의뢰하므로써 한과기능을 전수하게 되었다. 그후 부인도 한과기능을 습득하여 지금은 소규모 한과 자영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 사례 2 : 시설퇴소자 P (남, 23세)

시설퇴소자 P는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다양한 직장생활을 경험한 자였다. 선반공, 신문배달, 중국집 배달원, 막노동 등을 하면서 생활해 왔으나, 한 직장에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근무한 적은 없었다. Y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부터 P를 의뢰받아 한과기능을 전수하게 되었다. 현재 지역마다 이동하면서 한과 자영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P와 생활하였던 이전의 시설동료 및 선배들에게도 권유하여 한과기능을 전수받도록 유도하고 있다.

● 사례 3 : 모자세대 부녀자 S (여, 51)

모자세대 S는 결혼하여 두 딸을 낳은 후 남편과 사별하였다. 고향에서 남의 농사를 지어 주고 품팔이를 하지만 항상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을 통하여 S를 의뢰받게 되었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한과기능을 전수하게 되었다. 현재 S는 한과기능을 전수받은 다른 2명과 공동으로 한과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한과업체에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과기능을 전수하여 계속 자립을 유도하고 있다.

● 사례 4 : 생활곤란자 G (여, 54)

생활곤란자 G의 경우, 남편은 질병으로 활동능력이 없고, 두 명의 자녀가 있으나 이들은 결혼하여 분가하고 있다. 그러나 G에게 자신들의 생활고로 인하여 별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사회복지전문요원로부터 G를 소개받아 한과기능을 전수하게 되었으며, 현재 본가의 한과업체에 취업하여 열심히 자립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세대의 부녀자들은 기능전수 과정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다른 대상자들 보다 한과제조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들은 생활문제와 자녀의 양육, 교육 등을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해 왔기 때문에 다른 대상자들 보다 자립의욕이 강했다. 그러나 기능전수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잦은 마찰이 있었는데, 이것은 타인과 비교하여 가끔 열등의식을 가지며 사소한 일에도 민감하여 매사에 오해하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기능전수자는 이들의 장점을 높이 주고 자존심을 보호해 주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지도하였다. 그리고 모자세대의 부녀자들은 다른 대상자들 보다도 단시간에 쉽게 한과기능을 습득하였는데, 그 이유는 부녀자들이 결혼전에 전통적인 가정에서 한과제조 경험의 가졌기 때문이다. 이전에 한과제조 경험을 가진 대상자는 한과 기능전수는 물론 한과 자영업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

(2) 연장고아들은 다른 대상자들 보다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과 기능전수의 초기과정에서 단체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졌으며, 가끔 개인적인 불평을 하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 그리고 한과기능습득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훈련의욕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것은 기존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일방적 보호에 의해 의존적인 생활습관으로 나태하고, 새로운 일에 대해서 쉽게 체념하거나 좌절하는 습성이 있기 때

문이었다. 그러나 기능전수자는 현실적인 문제를 수용하면서 가족적인 분위기로 충고하고 격려하는 동시에, 기존의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결과로 기능습득에 있어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점차 조직의 분위기에 적응하면서 자립의욕을 가지고 기능습득에 열심히 노력하였다.

(3) 기타 생활곤란자들은 한과기능습득을 통해서 부업으로 소득창출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며, 이러한 성취의욕을 갖고 열심히 배우려는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한과 기능전수의 과정에서 타인과 비교하여 가끔 열등의식을 가졌으며, 자신의 일보다 타인의 일에 간섭이 많았다. 이것은 결국 대상자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하는 경우가 되었다. 이에 기능전수자는 대상자들이 서로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자신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불평·불만, 기쁜일, 슬픈일 등을 토로하면서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하고 격려하면서 동질감을 가지도록 배려하였다. 그 이후 이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한과 기능습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사례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이 자립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퇴락되고 불안한 상태에서 자포자기와 가정불화의 원인이 되었으나, 기능전수를 통하여 한과 자영업을 직접 실시함으로써 소득창출과 함께 기존의 생활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둘째, 저소득층에게 자립의 동기부여를 교육을 통해서 제공할 수도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에게 자영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자립동기가 부여된다는 것을 이번 자립활동의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저소득층이 자립생활의 이전에는 의존적이고 나태한 생활태도를 가졌으나, 자영업 활동 이후에는 어떤 고된 과업에도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결국 자신의 일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저소득층에게 효과적인 자립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립기능의 전수도 중요하겠으나, 이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와 좋은 작업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스스로 자립의 길을 터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사업기관은 이들의 자영업 활동에 있어서 경영적 기술인 한과의 판매기법이나 유통망의 연결방법 등 상황에 따라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저소득층 스스로가 실제적인 자영업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얻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V. 결 론

### 1. 개요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 있어 저소득층 자립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가치지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이 그들을 의존적이고 나태한 인간으로 만들기 쉽다는 문제인식하에, 개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발휘하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자립시책이 정부 및 사회복지기관을 통하여 수년동안 시행되어 왔지만, 대부분 자립프로그램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서비스에 국한하여 실질적인 자립생활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나타난 저소득층의 자립실패 요인 중 개인적인 사항으로는, (1) 적합한 자립기능의 부족, (2) 자립의욕의 결여, (3) 사회적 지원망과 관심의 부족, (4) 대인관계 능력의 부족, (5) 가족관계로 인한 활동의 제한, (6) 자립계획성의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바람직한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현존의 자립시책 프로그램에 대한 한계점을 분석하고, 저소득층 자립실패의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그 대안책으로 자영업개발모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사례연구는 저소득층에게 전통한과의 기능전수 후 자립을 유도하는 과정중심으로 자영업개발모형을 구축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영업 직종으로 전통한과업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전통한과 기능이 타 직종의 기능보다 간단하고; (2) 소규모의 자본으로 한과 자영업이 가능하고; (3) 전통한과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인하여 향후 전망이 좋고; (4) 여타의 자영업보다 수익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저소득층은 학력이 낮고, 자립기능이 없으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과 자영업이 이들에게 적합한 직종이라 사료되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자립방안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즉 자립동기, 근로능력, 자립기능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자영업개발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사례연구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저소득층의 특성에 적합한 자영업 프로그램을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취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향후 이와 같은 특정 자립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저소득층에게 자립의욕을 성취시키고 자활에 대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제공하는 적절한 자영업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효과적으로 자립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사례연구의 결과는 기존의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사업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기능을 전수함에 있어서 단순히 취업제공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발견토록 하고 자기 일에 애착심을 가지며 자기성취를 가능케 하는 기능전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직업훈련사업에도 이와 같은 내용과 방법이 적용되고, 사회사업기관의 프로그램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저소득층 자조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해서는 자영업을 통한 방안이 매우 효과적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 교육수준이 낮고 자립기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산업사회에서 수입이 안정되게 보장되는 고도의 숙련직 직종에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회의 흐름에 따라 요구되는 자영업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넷째, 전통한과 자영업의 직종방식을 원용하여 여타의 자영업 가능직종 등에 적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자립가능한 자영업개발의 대안들(alternatives)을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창업지원센터' 등을 설립하여 기업체, 관련 기능훈련단체, 민간단체, 사회사업기관 등이 상호협력토록 하고, 또한 사회사업기관이 중간역할로서 저소득층을 위한 자영창업의 교육, 자립기능의 전수, 자영자금의 지원, 기타 지원연결 등이 가능하게 하며, 이들의 자립효과에 기여하는 토착적인 자립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 2. 제언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논문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세 가지 영역의 지원체제로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자영업직종의 개발을 위한 개선책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지원체제는 법적 지원체제, 행정적 지원체제, 서비스 지원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법적 지원체제는 저소득층 자립방안에 필요한 법적 장치로서, 활동 가능한 저소득층을 연령별 혹은 능력별로 분류하여 이들에게 적합하고 자율적인 직종을 선택하여 기능습

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적 지원체계는 저소득층 자립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의미한다. 즉 저소득층 자립유도를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통해 이들의 동기부여와 접근가능한 자영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서비스 지원체계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의 개입을 통한 물질적 및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의미한다. 즉 저소득층의 활동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자립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자영업의 직종이나 대상자의 수에 있어 한계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발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개선책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과 자영업 프로그램을 본 연구자의 본가(本家)에서 대상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에 입각하여 가족적인 분위기로 기능전수 및 자립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와 같은 한과 자영업을 다른 사회사업기관 및 관련 직업훈련단체 등에 적용하여 자영업 프로그램으로서 저소득층의 자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검증해 보는 작업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둘째, 한과 자영업 사례연구에서 대상자를 개별적 특성에 따라 네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나, 기능전수 및 자립과정에서는 대상자들이 전체적으로 혼합되어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 몇 가지의 개인적인 차별화가 나타났다. 즉 훈련대상자 중에서 시설퇴소자는 자립의욕이 결여되어 기능전수의 적응력이 낮았으며, 모자세대의 부녀자들은 삶의 의욕을 갖고 높은 적응력을 보였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유형에 따른 자립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하여 대상자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특정 그룹유형에 적합한 자립프로그램들이 각각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논문에서의 한과 자영업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주도하여 기능전수 및 자립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였다. 앞으로 사회사업기관이 이와 같은 자립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사회사업가의 역할과 사회사업적 개입방법들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사회사업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기능교육을 시키며, 자립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이 개발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